



향가문학(鄕歌文學)의 종교적성격(宗教的性格)

The religional character of HYANGKA literature

저자
(Authors) 김중우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15](#), 1956.12, 15-150 (13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5](#), 1956.12, 15-150 (13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4613>

APA Style 김중우 (1956). 향가문학(鄕歌文學)의 종교적성격(宗教的性格). 국어국문학, 15, 15-15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0 13: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鄉歌文學의 宗教的性格

— 하나의 序論的試圖 —

金 鍾 雨

- | | | |
|-----------|---|-------------|
| 1. 序 言 | 1 | 4. 郎佛融合과 鄉歌 |
| 2. 花郎과 鄉歌 | 2 | 5. 蓍童義와 觀音 |
| 3. 佛敎와 鄉歌 | 3 | 6. 默花歌와 禪僧 |

1. 序 言

우리의 古典文學中 滄海에 遺珠와 같어도 傳承되어온 鄉歌는, 이미 몇몇 先輩들에 依하여 難解한 表記文字의 解讀이 試用되어, 未知의 迷宮이 열려졌으며, 또 詩歌로서의 形式問題에 對해서도 四句體 八句體 乃至 十句體에로 發展한 過程을 舉論하기로 했으며, 다시 內容問題에 對하여서는 大部分의 意見이 佛敎의 色彩가 濃厚하다는데 歸結되고 있으나, 一面 鄉歌는 花郎이 헤게모니를 잡고 領導하였으며, 花郎道의 精神을 담은 文學이라고 斷定한 사람도 있다.

이제 나는 古典을 理解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으로, 지금까지에 先輩들이 語學的으로 解讀한 것에 基盤을 두고, 다만 內容上 問題만에 關하여 考究하기로 한다. 먼저 新羅時代의 花郎과 鄉歌와의 關係를 簡單히 말하겠고, 다음은 佛敎와 鄉歌와의 關聯性에 대하여 言及하고, 끝으로 新羅의 文化는 郎佛融合의 文化이었고, 그 文化의 한 現象인 文學(鄉歌)도, 郎佛融合의 所産이라는 結論을 얻어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傍證하는 第一次의 方法으로서, 두개의 鄉歌를 들어 그 內容의 宗教的 究明을 시험해 보려 한다.

2. 花郎과 鄉歌

新羅의 文化는 端的으로 말하면 우리 民族 固有의 信仰을 基盤으로 發하고, 그 위에 피어난 外來文化 特히 佛敎를 核心으로 한 一面이 있고, 샤마니즘을 起點으로 하고 그위에 建設된, 또 다른 方向으로서의 花郎道가 있어, 이 兩者가 相互融合한데서 釀成된 文化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文化 現象中의 一面인 新羅의 文學 即 鄉歌도, 結論부터 말한다면 花郎과 佛敎의 兩面性을 띤 文學이다. 鄉歌는 花郎의 文學이기도 하고 佛敎의 文學이기도 하다.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칠 수 없는, 그야말로 郎佛이 融合하여 이루어 놓은 文學이다.

花郎道는 우리의 固有한 原始的信仰인 샤마니즘을 起點으로 하면서, 外來의 高級宗敎인 儒佛道들과 잘 調和되었거니와, 이제 잠깐 그들의 修身敎訓이든 世俗五戒의 內容을 살필진데,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의 三戒는 儒敎의 忠孝思想이요, 「殺生有擇」은 佛家一戒中의 하나요, 「臨戰無退」만이 新羅 固有의 氏族社會의 遺習에 依據한 勇猛果敢의 戰鬥的精神의 現顯인 바, 花郎道 特有의 것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理念과 氣風속에서 자라나는 花郎들이, 人格의 陶冶하기 위해서 道義로써 서로 琢磨하였으며, 情緒를 涵養하기 위하여 때로는 歌樂으로 相悅하였다. 그리하여 그 時代의 꽃이었던 花郎들은, 詩作과 歌樂에 對한 素養이 充分했으므로, 民族을 守護하기 위하여 攻城戰野에 東奔西走하는 民族英雄을 기리는 노래들이 많이 있었음을, 또한 記錄에서 볼 수 있다. (例 奚論歌, 陽山歌, 長漢城, 勿稽子歌 等). 그러나 이들 花郎도 統三以後에는 用武의 땅이 없었던 것과, 또 絢爛한 唐文化의 輸入 感化로 因하여, 城野攻防의 勇士들은 退嬰的인 有閑青年이 이 비렸다. 士氣를 돕기 위했던 歌樂은, 本來의 目的을 離脫하여 歌樂을 위한 歌樂으로, 野外的 敎練을 兼했던 山水間의 遊娛는 遊娛를 위한 遊娛로, 遊興氣風 享樂一路에로 轉落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統三以後는 平和의 甘夢속에 耽溺되어, 統三以前の 視死如歸하던 氣魄과 情熱은 喪失되었지만, 名山大川에 遊娛하고 吟風詠月에 陶醉하는 사이에 읊조려진 노래들도, 歌謠로서의 本質에 있어서는 統三以前の 것에 比할 때, 何等의 遜色도 있는 바 아니다. 그들의 읊은 바 노래의 內容이 時間的變遷에 影響되어, 叙事와 抒情의 區劃은 생김직도 하지만, 花郎 那들 自身の 品性陶冶와 情緒涵養 乃至 感興을 꾀하는 趣向과 意味속에서 즐겨 노래가 불리워졌으며, 나아가 新羅文化中の 獨特한 一面으로서 鄉歌文學을 形成했음은 否定할 수 없다.

3. 佛敎와 鄉歌

花郎에 있어서의 歌樂이 이렇게 그들 自身の 修養 乃至 敎養의 한 要素로 選擇되었음에 反하여, 佛敎人들이 잘 歌樂을 즐겨했음은 어떤 까닭인가? 이는 願行을 못도로 하고 敎風으로 化生하고자 하는 菩薩의 利他的精神에서 發現되었음을 본다.

慈藏 安舍 義湘 朗空과 같은 多數한 名僧碩德들이 入唐求法하였고, 그들이 還國하여서는 이 땅에 大乘의 宗旨와 律宗을 確立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僧侶로서의 最高의 地位와 名譽 尊敬을 博得한 사람들이지만, 그 中에도 慈藏같은 이는 特히 新羅的 佛敎를 創說하여, 各處에 戒壇을 設立하고 國家의 隆昌과 群生의 敎化에 平生을 獻身한 사람이다.

이러한 佛敎의 大乘宗旨는 元曉 義湘과 같은 無碍의 眞理를 宣揚하는 華嚴哲學과도 同調되었으며, 또 無碍의 行은 그들의 活動面에서 如實히 나타났다. 누구보다도 이 無碍道理의 模範的 實踐者는 元曉이었으니, 그 狀이 瑰奇한 大瓠를 舞弄하면서 千村萬落으로 且歌且舞하며, 化詠而歸할 제 부르던 「無碍歌」도, 이러한 宗教的琴線을 타고 읊어진 것이리라.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를 노래하여, 그 結果는 瑤石公主를 만났고, 薛聰을 낳은 뒤에는 緇衣를 버리고 自號를 小姓居士라 하

있음은, 可謂 異人비슷한 舉動이지만, 이도 또한 無碍의 境地에 이른 凡俗을 超脫한 者의 行動이요, 一面 普通人間인 元勝 그대로의 됨됨을 나타내기도 한 것이다. 染과 淨이 둘이 아니고, 僧과 俗이 다를 수 없는 하나의 人間으로서의 統一體를 表現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無碍의 境地이다. 그 어디에도 拘碍됨이 없는 赤裸裸 淨灑灑한 人間 그대로의 露出이다. 그러나 그는 後世人들에게서 海東釋迦라는 榮光의 人 讚辭도 받았고, 新羅十聖의 一人으로도 參列했다. 또 그의 아들 薛聰은 우리 나라 國語學上의 始祖라 할 만하고, 新羅十賢의 一人으로 崇拜되었으니, 그들의 居處이던 芬皇寺는 寺院이면서 鄉校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儒佛이 또한 둘이 아니니, 新羅는 無碍道理의 質踐場이고, 新羅의 文化는 儒佛雙融의 文化라 할 만하다.

宗教는 自己의 完成만으로써 그 目的이 達成되는 것이 아니요, 他로 하여금 共同히 理想의 彼岸에 到達하게 하는 利他的의 面이 充實하였을 때 비로소 自覺과 覺他의 覺行이 圓滿한 宗教가 될 것이다. 佛敎가 新羅에 와서 이런 點에 忽疎히 할 理도 없었으리니와, 때는 正히 新羅의 佛敎를 建設하여 國家民族의 意味에서 花郎과 提携하고, 統三의 偉業을 成就하여야 할 그러한 高비를 만났음에라?

이러한 切迫된 機會를 잃지 않고 佛敎는 利他的의 事業을 具現하기 위하여 그의 壯途를 出發하였다. 그리하여 때로는 壯嚴한 佛像을 造成하기도 했고, 音樂과 그림을 그리기도 했으며, 平易한 說敎에 比喩의 說話를 섞어 大衆을 信者로 일기에 汲汲도 했다. 或은 歌謠 演劇 舞蹈를 通하여 大乘佛敎의 宗旨를 宣揚하는 外에, 因果應報와 宿命論 輪廻와 隨念等 思想도 宣傳하여, 一般民衆의 啓蒙上 利益도 不少하게 하였다.

이들 여러가지 宣敎의 方法中에서 特히 歌謠를 創作하여, 널리 一般에 宣傳普及하게 한 所以는 무엇이나? 이는 當時의 新羅人들이 많이 노예를 神聖視하였고, 그 어느 것보다도 普通 즐거웠는데 起因한다고 생각된다. 卽『三國遺事』月明師 兜率歌條에 「羅人尙鄉歌者尙矣 蓋詩

頌之類歌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이라 하였음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이 鄉歌를 崇尚했음을 짐작하게 하거니와, 鄉歌는 當時 寺院에서 佛供 卽 부처 앞에 祈禱를 올릴 때, 佛辭로 된 祝詞外에 讚頌을 意味하는 말—노래로 불리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同上 月明의 兜率歌條에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閑聲梵」이라 했는데, 이는 聲梵 卽 梵唄, 佛辭로 된 祝禱詞에 對하여는 잘 익숙하지 못하고, 一般이 歌唱할 수 있는 鄉歌에 對해서는 能하다는 뜻으로 解하여야 할 것이요, 또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鄉歌祭之 忽有鸞聽吹錢 飛學向西而沒」이라 한 것도, 寺院에서 齋를 올릴 때 讚歌인 鄉歌를 지어 祭祀였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禮拜堂에서도 祈禱하는 말外에, 마로이 여럿이 合唱하는 讚頌歌가 있듯이, 當時의 佛敎는 市中の 佛敎요, 大衆化한 佛敎였음을 想起한다면, 梵唄—卽 專門의인 主僧에 依하여 불리우는 佛辭 以外에 누구나 잘 부를 수 있는 讚歌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鄉歌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차 月明도 梵唄를 잘하는 祝禱의 專門僧은 못되고, 花郎徒에 屬한 讚歌를 吟詠하는 程度의 僧侶였던상 싶다. 오늘날도 절에서 佛供을 올릴 때 讚誦되는 文句의 內容과, 그 節次를 詳考해 보면 禱詞 以外에 歌詠이란 것이 있고, 歌詠은 普通 祈禱하는 主僧을 補佐하는 程度의 사람이 외우기로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을 바라지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 歌詠이라 바로 新羅時代에는 鄉歌이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 殘影으로서 남은 것이 아닐까? 均如傳의 「歌行化世分」에는 涉淺歸深하고 從近至遠하게 하기 위하여, 詞腦歌를 創作한다는 그 動機를 말한바 있지만, 新羅의 佛敎人들도 이미 이러한 意味에서 宣敎의 한 方法으로 歌謠를 兼用하였음을 窺知하게 해 준다.

4. 郎佛融合과 鄉歌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新羅의 文化는, 花郎과 佛敎와가 相互融合하여 釀成한 文化이다. 그러므로 文化의 한 現象으로 나타난 鄉歌文學

의 그 內容에 있어서도 深考와 詳察을 加한다면, 花郎의 作品속에서도 宗教的인 一面이 隱顯하고 있음을 쉽게 發見할 수 있고, 佛敎人의 作品中에서도 能히 花郎的인 氣風이 出沒하고 있음을 看破할 수 있다.

花郎은 自利의 立場에서 鄉歌를 즐기었고 佛敎는 利他의 方面에서 鄉歌를 吟詠했다. 그리하여 鄉歌는 自利와 利他의 圓滿을 期한 統一的인 文學이요, 郎佛이 融合形成해 낸 最高峰의 藝術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鄉歌의 內容은 花郎의이기도 하고 佛敎의이기도 한 것이다. 또 逆說的으로 말한다면 花郎的인 것도 아니고, 佛敎的인 것도 아니다. 왜냐 하면 花郎과 佛敎가 圓融無碍하게 相互融合된 中에서, 第三의 새로운 獨自性을 가진 文學으로 登場된 것이 鄉歌이기 때문이다. 郎佛이 相互表裏의 關係를 이루어 들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기도 한 것을, 여기에서 融合이란 말로 表現하고자 한다. 鄉歌에 있어 佛敎的인 것이 外面에 表出될 때는 花郎的인 것이 그 裏面의 內容을 形成해 주고, 反對로 花郎的인 것이 表面에 나타날 때는 佛敎的인 要素가 그 背後의 性格을 構成해 준다. 郎佛의 關係는 卽 多이면서 一이요, 一이면서 多이기도 하다. 그 하나가 有의 現象이라면 다른 하나는 空의 原理인 것이다. 眞空妙有의 結合이요, 相卽相入의 聯關性에서 맺어진 郎과 佛이다. 鄉歌는 이러한 郎佛兩者가 相互卽入하는 活動의 鏡面上에 表裏隱顯하는 하나의 明暗像이다. 여기에 두 개의 거울이 있어 甲鏡은 乙鏡에 비치고 乙鏡은 또 甲鏡에 비치었다면, 이 때의 두 거울은 서로서로가 表裏의 關係를 이루면서 融通無碍하게 相互가 交雜된다. 鄉歌는 卽 花郎이란 거울과 佛敎란 거울이 서로 서로 照映하여 多卽一 一卽多의 關係로 交雜된 鏡面上에 蔚然히 나타난 하나의 影像이다.

이렇게 鄉歌文學의 內容上 性格을 想定한다면 鄉歌全般에 亘하여 이를 一一히 考證하여야 하겠고, 또 現在 歌詞가 傳해지는 鄉歌에서 뿐 아니라, 歌詞는 不傳하나마 그 歌名만이라도 傳하는 鄉歌의 內容까지

라도 究明함으로써 비로소 完璧을 期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不可能도 하거니와 또한 尙도 하기에 割愛하기로 하고, 于先 一見하여 何等의 宗教的 背景이 없다고 보는 薯童謠와 獻花歌에 對하여, 그 內容을 佛敎的인 面에서 考究함으로써 鄉歌가 耶佛融合의 所産이라는 一部의 傍證을 삼고, 나아가 鄉歌全部의 內容도 耶佛兩者가 서로 融合한데서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序論的인 試圖로 삼고자 하는 바이다.

5. 薯童謠와 觀音

먼저 薯童謠의 原文을 紹介하면

善化公主니문 남 그으기 일여두고,

맛둥방을 바뵈 돌 안고가다.

即 善化公主님은 남모르게 情을 通하여 두고 薯童書房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이 노래는 新羅 眞平王代의 薯童(後에 百濟의 武王이 되다)의 作인데, 「百濟 武王이 新羅 眞平王女 善化를 娶고자 少時에 羅京에 微行하여 奇計로써 金針 童謠를 지어 閭里群童에게 부르게 한 것이니, 果然 所傳대로라면 武王의 即位가 眞平王 22年 (A. D. 600年)임에 비치어, 前의 所作인 詞腦歌中 現存 最古의 歌謠이다.」(梁柱東氏의 古歌研究) 그런데 이 童謠의 作者인 武王의 出生을 본다면, 「母寢房 築室於京師南池邊池龍交通而生」이라 하였으며, 그것이 너무나도 傳說的이고 또 「少名薯童 器量難測 常綱薯蕷 質爲活業, 國人因以爲名」이라 함을 볼 때 딱도 貧賤한 家庭에서 成長한 듯한데, 이처럼 新羅의 公主와 結婚도 하였고 後에는 百濟의 王까지 되었다 하니, 이는 아마 英雄에 혼이 있을 수 있는 後人들의 誇張된 心理의 表現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이미 當時에 流行해 있던 노래를 傳說的인 武王에 寄託하여 後人의 速作함이 아닐까? 如何든 作者의 出生經驗은 딱 傳說的이고, 또 羅京에 微行했다고 하니 이는 百濟에서 볼 때 南行이었으며, 그리고 善化는 美

體이 無雙한 一國의 貴한 몸으로 異國의 無名한 微賤한 男子와 偶爾信悅하였다 하니, 이 노래의 前後 說文을 熟考해 볼 때 善化는 佛敎의 觀音이요, 驛童은 그의 補處인 南巡童子가 아닌가. 또 驛童의 어머니는 池龍과 交通한 사람이었다 하니 龍과 關係 깊은 사이였다면, 觀音의 右補處인 海上龍王은 바로 驛童의 母 그를 말함이 아니었을까?

觀音菩薩은 往往 美貌의 女性으로 化身하는 大慈大悲의 象徴으로 되어 있다. 그는 千手千眼을 가지고 拔苦與樂을 그의 任務로 하는 願力이 弘深한 菩薩이거니와, 南巡童子는 그를 恒常 侍衛補佐하면서 法을 듣는 童子이다. 「觀音讚」에 「觀音菩薩無說說이요 南巡童子不聞聞이라」 한 것과, 「驛童謠」의 說文에 「公主雖不識所從來 偶爾信悅 因此隨行 潛通焉」이라 한 것을 相照해 볼 때, 無說而說이 되고, 不聞而聞이 되어 觀音과 童子와의 사이에 無言中에 默契되는 心境이나, 偶爾信悅하여 서로 潛通하게 되는 公主와 驛童과의 關係는 志氣相通함이 無言中에 있다는데, 兩者는 共히 類似한 바가 없지 않다. 또 노래에는 「善化公主님은 驛童書房을 밤에 불래 안고 가다」란 말이 있는데, 觀音은 女神으로 粉裝하고 밤에 男子의 居室에 잘 往來하면서, 그들의 修道를 도와주고 또 그들을 敎化한다고 한다. 이제 이런 것을 「三國遺事」所載인 「南白月二聖努躬夫得 但々 朴朴」條에서 一例를 들어본다면, 白月山 東南쪽 三千步許에 仙山村이란 마을이 있었고, 그 村에는 努躬夫得과 但々 朴朴이라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 風骨이 非凡하고 남다른 사상을 품고 있었으며, 서로 매우 기깝게 지냈다. 둘이 다 弱冠적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며, 後에 夫得은 懷眞庵이란 곳에 옮겨 살았고, 朴朴은 琉璃光寺에 居處하였다. 모두 妻子까지 데리고 살면서 産業을 經營하고 서로 往來하나, 恒常 方外의 뜻은 버리지 않고 人生의 無常함을 늘 嘆息하며 서로 말하기를, 「기름진 땅과 따뜻한 옷도 좋기는 하지만, 衣食이 생각만 하면 저절로 이르러서 自然히 飽煖하는 것만 못하고, 妻子의 情愛도 즐겁기는 하지만 蓮池花藏에 一千聖人이 함

깨 놓고, 鸚鵡 孔雀으로 더불어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물며 佛을 배워서 成佛이 되고 眞을 닦아서 眞을 얻음이려요. 지금 우리들이 기위 머리를 꺾고 중이 된 이상에는, 모든 겨레까지 벗어 버리고 더 깊이 들어갈지니, 풍진 가운데 그냥 묻혀 있으면 속된 무리와 무엇이 다르랴』하고, 이 俗世를 버리고 山中에 들어가기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떤 날 밤 꿈에 西便 쪽에서 白毫光이 비치이며, 그 빛 가운데 金髮 팔(臂)이 내려와서, 두 사람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꿈을 꾸었다. 깨어서 서로 이야기하여 보니,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꾸 것이었다. 그만 이 특이한 일에 感激되어 드디어 白月山 無等谷에 들어가서, 朴朴師는 北嶺 板房에 살면서 彌陀佛을 禮念하고, 夫得師는 東嶺 崑房에 居하면서 彌勒佛을 勤求하기 於焉 3년의 歲月이 거의 흘렀다. 때는 聖德王 即位 8年 景龍 3年 己酉 4月 8日! 그날 해도 넘어가서 저녁이 다 되었는데, 웬 한스물 안팎의 容姿가 絕妙한 女人 하나가 북암(北嶺)—板房에 이르러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請하면서

行遲日落千山暮 路隔城遙絕四隣
今日欲投庵下宿 慈悲和尚莫生嗔

이라고 읊어 준다. 朴朴은 『여기는 깨끗하게 하여 女人을 묵일 데가 못되니 가라』고 門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女人이 이번은 南嶺으로 가서 前과 같이 또 請하였다. 夫得師는 『그대는 어디서 밤에 이렇게 오는가?』고 물었다. 女人은 『막힌 길에 무슨 往來가 있으리요. 스님의 志願이 深重하고 德行이 高潔하시단 소문을 듣고, 菩提를 助成하고자 왔나이다』 하며, 一偈를 내어 놓는다.

日暮千山路 行行絕四隣
竹松陰轉邃 溪澗響猶新
乞宿非迷路 尊師欲指津
願唯從我請 具莫問何人

夫得師는 듣고 놀라서 『이 곳은 女人으로 더럽힐 곳은 아니나 衆生에

隨順하는 것도 菩薩行의 하나 이리라. 하물며 꿀짜기는 깊고 밤도 깊었는데 어찌 도루 쫓으랴.』 하고 庵子안에 불러 들었다. 밤든 뒤에 마음을 가다듬고 희미한 등잔 앞에 念佛을 외우고 있었는데, 夜半에 女人이 갑자기 『不幸히 産氣가 보이오니 스님은 그 자리를 준비하여 주소서.』한다. 夫得師는 할일없이 말대로 하여 주었더니, 몸을 풀은 뒤에는 또 먹을 감겠다 한다. 夫得師는 더욱 가슴 설레지만 가끔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합지박을 내어 女人을 들어가게 하고 물을 끓여서 먹을 감게 하니, 이윽고 이상하다! 합지박의 물이 香氣가 뉘욱하고 金色으로 變한다. 夫得師가 內心으로 몹시 놀랄 때에 女人은 夫得師에게 함께 들어와서 沐浴하자고 한다. 夫得師는 그 말대로 합지박에 들어 갔더니, 忽然히 精神이 맑아지며 肌膚가 金빛으로 變한다. 그리고 걸을 보에 忽然히 蓮臺가 하나 생겨났다. 女人은 夫得師를 勸하여 蓮臺위에 올라가 앉게 하고 말하기를 『나는 觀世音 菩薩이라 大師를 와서 도와서 大菩薩을 이루게 함이로다.』 말을 마치고는 忽然 사라져 버렸다.

밤에 남몰래 薯童書房을 안고간다는 善化公主와 밤중에 같은 합지박에서 同浴을 請하는 觀音의 眞身과는, 그 果敢한 行動面에서 서로 통하는 바가 없지 않으며, 또 肌膚가 金色化하고 합지박의 물이 金液으로 變成했다는 것은, 薯童의 掘薯하던 땅에 黃金이 委積如土했다는 것과, 그 神異 變法的인 點에서 서로 類似한 바가 없지 않다.

佛敎가 輸入된 以後 世間에는 이러한 傳說이 說話들이 많이 流布되었다. 오늘날도 慶南 梁山郡에 있는 元曉山의 元曉庵과 義湘臺를 舞臺로 하고 傳承되는 說話는, 上例의 傳說과 비슷한 바가 많다. 그러므로 이 薯童謠의 作者도 當時 世間에 流行하는 이러한 佛敎의인 說話에 精神的으로 많은 影響을 받았겠고, 그것을 簡單한 노래로 潤色하였을 때 이런 歌謠가 생긴 것이 아닐까? 더우기 觀音을 善化公主에 寄托함으로써 閔里 群童을 感化하는 노래의 効用이 컸던 것이다.

6. 獻花歌와 禪僧

老人 獻花歌의 原文은 이러하다.

「뒀배바회존학 잠온손 암쇼 노히시고

나호안디붓글리샤돈 꽃홀것가 받조보리이다」

「질끓은 바위가에 붙들고 있는 암소를 놓으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서 받치오리이다」.

때는 新羅 聖德王代 純貞公이 江陵太守로 赴任하던 途中 海汀에서 鬻膳을 하게 되었다. 그의 夫人 水路가, 臨海千丈의 絕壁위에 피어 있는 躑躅花를 탐내어, 左右를 돌아보고 꺾어 달라 하였으나, 누구 하나 敢히 그 꽃을 꺾어 올 사람이 없었다. 이 때 마침 소를 몰고 지나가던 老人이 이 말을 듣고, 꽃을 꺾어 水路에게 바치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여기에 登場된 牽牛老翁! 이는 어떠한 人物을 말함일까? 佛敎에서 佛이 되기 前의 修行者의 程度를 聲聞 緣覺 菩薩로 區別하고, 이것을 譬하여 聲聞은 羊車와 같고 緣覺은 鹿車와 같고 菩薩은 牛車와 같다 하며, 이것을 三乘이라 한다. 이 중에 牛車에 譬한 菩薩은 「菩提薩陀」의 略한 것인 바, 그 뜻은 「上求菩提(正覺)하고 下化衆生한다」는 것이다. 卽 菩薩은 佛의 地位까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으나, 能히 衆生을 教化할만한 資格은 具備한 者를 말한다. 남을 위하여 非凡하게 難行을 能行한 이 老人이야말로 보살의 化身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또 佛家에서 禪僧을 가리켜 牧牛子라 하기도 하며, 그들의 居處하는 修道場을 尋牛堂이라고도 한다. 卽 마음의 「소」를 먹이는 사람이요. 마음의 「소」를 찾는 집이란 뜻이다.

여기에 나온 老人은 牽牛라는 老翁이니, 多年間 잃었던 自己의 心牛를 붙들며 그 「소」의 고삐를 잡은 老人이다. 다시 말하면 本來로 淸淨한 自己의 心性을 大悟하고, 그 일은 바 「소」의 장등에 몸을 싣고서 은은히 들려오는 피리소리에 맞추어 自己 法悅을 즐기면서, 그림던 本家 鄉으로 돌아가는 雲水의 行客이요 禪僧인 것이다.

그러나 이 이는 아직도 人我俱忘의 境地에는 이르지 못했는지, 美貌

의 女性인 水路를 보자 男性으로의 精神的 動搖도 있었으려니와, 품고
 록게도 한 떨기 꽃을 願하는 場面에 逢着되었다. 여기에서 마음의 혼
 들림은 더욱 컸던 양, 그는 多年間 에서 인었던 貴重한 自己의 心牛까지
 도 그 고삐를 놓고, 꽃을 꺾어서 반치겠다는 것이니, 이는 直率하고도
 꾸밈이 없는 人間性的 發露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懦弱한 女性의
 애끓은 呼願에 同情의 慈愛心이 담복 잠겼으니, 이는 남을 위하여 自
 己를 犧牲하는 崇高한 精神의 所有者이기도 하다.

다음은 노래 중에 「부끄러워 아니한다면」하는 말이 있다. 이는 무엇
 일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처음 만나는 異性들 사이에는 마음의 부끄
 럽이 先行하는 것이다. 이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彼此間에 마
 음의 牆壁이 가로 놓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서먹서먹한 마음의 牆
 壁을 없애는 것은, 彼此의 부끄러웠던 마음이 解消되는 때이다. 여기에
 서도 몸은 비록 두 몸일망정 마음은 하나로 完全한 一心同體의 結合을
 맺자는 것이겠고, 또 그것은 꽃을 媒體로 하여 成立의 機緣을 만들자
 는 것이다. 아무리 臨海千丈의 絕壁일망정 말하지 못하는 꽃은 손을
 통하여 꺾을 수 있으랴? 그러나 비록 咫尺의 사이에 있다 하여도,
 말할 줄 아는 그 꽃만은 쉽사리 손으로 꺾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것
 은 마음으로서만이 꺾을 수 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나? 그 마
 음은 바로 서로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마음인 것이다. 이렇게 彼此에 부
 끄러움을 없애고 完전히 結合하는 信物로서 表徵된 것은 곧 꽃이었다.
 그 꽃을 願한 사람이나 그 所願을 들어 주기 위해서, 自己가 年來로 찾
 어 얻은바 貴重한 心牛까지도 헌신같이 버린 사람이나 다 같이 百年의
 知己之友를 一座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可謂 鑿山會上的 釋迦와 飲光
 이拈花할 때 微笑하던 光景! 以心傳心하던 그 妙境이 攄擧해 진다.

또 여기에는 꽃중에도 特別히 躑躅花가 登場하였다. 만일 우리 나라
 가 아니요, 그 땅이 印度였다면 躑躅꽃이 나왔을 것이요, 中國이었다면 牡
 丹꽃이 나왔으리라. 우리나라에 봄철이 오면 滿山에 爛發하는 躑躅!
 여기에 鄉土의 香氣가 그윽히 풍기고 진달래 켜던 어린 時節이 追憶속

에서 맴돈다. 지금에 몸은 비록 늙었을망정 少年 時節의 진달래 꺾던 追憶! 山으로 오르내리던 青春 時節의 幻想! 이 老翁은 그 時節 그 青春을 限없이 回想하는 新羅의 修行者, 卽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禪僧이었다.

要言진대 尋牛하고 放牛하는 숨김없는 人間性, 抑強하고 扶弱하는 넓은 雅量의 同情者, 더우기 꽃을 媒緣으로 하여 青春을 再現하는 場面, 이것은 아무래도 一步 超然한 世界에서 悠悠自適하는 禪僧老人의 心境이 아니라면 읊어질 수 없는 노래인가 한다. 곱고도 아름다운 水路와 꽃, 엄숙하고도 느릿한 禪僧과 소, 이 얼마나 황홀한 美와 聖의 對照境인가. 이렇게 이 노래의 作家인 無名老人을 禪僧으로 看取하여 말했거니와, 『三國遺事』의 編者인 一然은 그의 法統이 「遙嗣牧牛和尚」이라 하였으니, 그가 禪僧이었고 또 「牧牛和尚」에게서 法脉을 繼承한 者일진대, 여기에 登場된 牽牛老翁은 意外에도 一然 自身이 아니었는가? 敢히 이렇게 생각되는 바도 없지 아니하다.

7. 結 語

以上은 하나의 方法의 提示이었다. 우리의 古典 文學을 알기 위해서 努力하는 한 過程을 말한 것이다. 稀少하고도 湮滅이 많은 우리의 古典文學! 더욱이 그 內容을 正鶴에 맞도록 理解하기란 難中の 難事가 아닐 수 없다. 特히 鄉歌는 完全 妥當한 語學上解釋이 先決되어야만 그의 內容上 問題도 풀리어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에 몇분 선배들의 훌륭한 努力의 結晶體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의 完全한 大成은 역시 우리들의 今日的 課業이기도 하고, 明日의 努力에 期待되는 바가 많다. 위에서 論及한 것들 中에는 띄어나 牽強의이오 附會的인 바가 不少하였지만, 이는 하나의 冒險的 試圖이었음을 理解하기 바라며, 또한 이렇게 想像의 날개를 먼 옛날로 펼쳐 보는데서, 迷宮속에 잠긴 古典內容을 多少나마 理解하는데 便法이 되지 않을까 함이었다. [끝]